

돌봄 공백 없는 무주 만든다

제1기 무주군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출범... 무주형 돌봄 체계 구축 본격화

무주군이 '무주형 돌봄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26일 제1기 무주군 돌봄통합지원협의체가 출범했으며, 무주군은 이를 기반으로 돌봄 공백 없는 무주를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기 무주군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지역 내 보건·복지·의료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중심, △샐러터에서의 돌봄,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 2026년도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한 세부 실행계획을 심의·자문하며,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확인했다. △방문 의료 사업,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 △병원 동행 지원 등 의료에서부터 보건·주거·일상생활 돌봄에 이르는 전 영역에 걸친 주요 사업들도 논의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형 통합돌봄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꼭 필요한 분들이 돌봄 공백을 겪지 않도록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영역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제공·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계 인구 확대는 물론, 마을 수익을 주민 돌봄으로 환원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현실화하고 있다. 사진은 상기막 마을 공동급식 모습.

진안군, 공동체 기반 모델 확산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으로 관계 인구 확대·공동체 회복

진안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계 인구 확대는 물론, 마을 수익을 주민 돌봄으로 환원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현실화하고 있다.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은 마을 고유의 자원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과 마을 간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에 환원함으로써, 관광이 곧 공동체 유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성과는 이미 마을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 2025년 1월, 진안을 외사방마을에서 마을 수익을 활용해 마을 주민 38명에게 매달 5만 원씩 자치연금 지

급을 시작했다. 또한 2025년 11월부터는 진안을 상가막 마을에서 촌스런 마을여행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을 활용한 연중 마을 공동급식을 추진하며 마을 돌봄 모델의 체계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상가막 마을은 공동급식을 통해 고령 주민에 안정적인 식생활을 지원하고, 주민 간 교류와 유대를 강화해 마을 공동체의 돌봄 기능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마을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모델을 발굴해 관계 인구가 확대되고, 지역 공동체가 회복 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들은 마을의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된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촌스런 마을여행을 비롯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다양한 돌봄 모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오늘도 생각한다'... 진안 과거·현재·미래 말하다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출판기념회 성황리 열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24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열렸다.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24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군민과 각계 주요 인사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안규백 장관, 안호영·김병주·강득구·한창민·이원택·박희승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영상 축사를 통해 출간을 축하하고, 고요주 회장도 축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진안군민을 비롯해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등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동 의장이 진안군에서의 생활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회와 지역을 위한 저서 '오늘도 생각한다'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책에는 농촌 현장과 지방의회

활동, 지역 사회에 대한 인식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동 의장은 진안군의 성장 과정과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설명했다. 동창옥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출간 소회를 밝히고, 진안군에서의 삶과 공직 경험에 대해 언급했으며, 향후 지역을 위한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동 의장은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며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것 같아 걱정과 후회를 하기도 했다"며 "군민을 중심으로 두고, 사람으로 채워가며, 사람으로 통하는 부자 진안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안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은 진안 군민에게 있다"며 "군민이 염원하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의장은 최근 진안군수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번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군민과의 소통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제381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정취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받고,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각종 정책과 사업이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남수 의원은 「천천면 북개하천 복원 필요성과 관리 방향 제안」을 주제로 발언하며, 하천 복원을 통한 자연



환경 회복과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회 의원은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의 개발 촉구」를 통해 장수군민의 고유한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상반기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장수군은 다음달 6일까지 근로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 등으로 나뉘고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8명, 공공근로 31명이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 산업팀 또는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일자리창출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다음 달 말까지 개별 통보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상반기의 경우 3~6월, 하반기의 경우 7~10월 총 8개월 동안 아이돌봄 보조, 청소 및 환경정비 등의 분야에 투입된다. 참여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군민으로 사업 자질검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다.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동일 기간 내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2025년 하반기 퇴직 공무원 정부포상 전수

장수군은 지난 23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퇴직 공무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퇴직 공무원 정부포상은 재직 기간에 따라 △33년 이상은 근정훈장 △30년 이상 33년 미만은 근정포장 △28년 이상 30년 미만은 대통령 표창 △25년 이상 28년 미만은 국무총리 표창 △10년 이상 25년 미만은 장관 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이날 전수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포상 대상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훈격별로 녹조근정훈장은 조용호 전 장수읍장과 최길환 전 산서면장이 수상했고 육조근정훈장에 성영록 전 국가유사팀장, 근정포장은 김홍열 전 민원과장이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훈·포장과 함께 증서와 부상이 수여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인도네시아 기업과 업무협약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단장 김경배)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인 피터 레제키 투주 일람(PT. REJEKI TULUH ALAM)과 홍삼·인삼 및 천연 꿀 등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공동 개발과 글로벌 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진안 홍삼의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한 동남아 시장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경배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과 앤담 피터 레제키 투주 일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각자가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품 공동 개발, 수출·유통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주요 내용은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은 진안 홍삼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인도네시아 수출 관련 업체 연계 지원, △피터 레제키 투주 일람은 천연 벌꿀 등 기능성 식품 소재의 생산·공급과 함께 현지 시장 정보 제공 및 유통망 연계 등이다. 특히 양측은 진안 홍삼·인삼과 인도네시아 천연 꿀을 결합한 공동 제품 개발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협력 범위는 진안 홍삼·인삼과 인도네시아 URAY(우라이) 천연벌꿀을 결합한 'K-홍삼 x 인도네시아 URAY 허니' 공동 브랜드 테마 활용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와 협력 검토가 포함되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